

'소이나루' 마을기업 선정

〈무주읍 서면마을 영농조합〉

모시 산업·전통음식체험관 운영 계획으로... 무주군은 2014년 이후 처음

무주군은 무주읍 소이나루 영농조합이 2017년 마을기업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전라북도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소이나루 영농조합은 '마을특화작물 모시 산업과 전통음식체험관' 운영(음식체험관에서 모시국수 제공) 계획을 기반으로 2017 마을기업에 선정됐다.

신동표 대표는 "주민들과 한마음이

데서 2월부터 설립 전 교육을 받는 등 마을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며 "전북도 내 행정자치부 심사를 통과해 최종 6개 마을기업 중 하나가 됐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소이나루 영농조합이 소재해 있는 무주읍 서면마을은 금강변 마실길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마을로 가는 축제, 썰다리 행사 등 다양한 마을체험 프로그램들을 개최하며 연간 10만여 명의 방문객들과 만나고 있다.

무주군정 산업경제과 이종현 과장은

"2014년 이후 오랜만에 신규마을기업이 생겨 기대가 크다"며 "무주의 7차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에는 호롱불마을(살천), 하늘평마을(무풍), 말글 나화놀이 영농조합법인(안성), 치목 삼배 영농조합법인(적상), 덕유산 신선명품마을(살천), 내창 마을기업(적상), 진원 반디길마을(안성) 등 7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이나루 영농조합이 2017 마을기업에 선정되면서 무주군의 마을 만들기 사업도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인삼뿌리썩음병 방제 미생물 인기

진안홍삼연구소, 희망농가에 주 200l 까지 무료 공급

진안홍삼연구소는 인삼 재배환경 개선과 인삼뿌리썩음병 방제를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미생물 보급 사업이 진안 인삼 재배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홍삼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20톤 규모의 배양소에서 미생물을 생산하여 인삼 재배농가 중 희망 농가에 주 200l 까지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0톤을 농가에 공급하였다.

또한 살포효과 분석과 인삼뿌리썩음병 방제 최적 미생물인 Y1 등 4종의 미생물과 연근별 생육상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생물은 살포효과가 좋아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농약구입비 등 경비절감으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진안홍삼연구소는 농가들의 미생물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 요구가 있어 20톤 규모의 배양조를 추가로 설치하여 7월부터 연간

1,000여톤의 미생물을 대량 생산하여 공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한 많은 양을 농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인삼재배 농가인 황용주 씨는 "미생물을 살포한 인삼포에는 잎이나 줄기를 갇아먹는 달팽이 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잎의 색깔도 진해지고 두꺼워지는 등 인삼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다"며 "인삼재배 면적 전체에 미생물을 살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근택 소장은 "이번에 연구 중인 미생물은 인삼뿌리썩음병 방제 뿐만 아니라 충해 감소와 수확량 증가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진안인삼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인 만큼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을 모두 공급할 수는 없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 '건강백세 운동교실' 운영

장수군보건국의료원은 연중, '2017건강백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국의료원에 따르면 건강백세 운동교실은 장수군 밀양노인복지센터 신관 1층 다목적실에서 매주 수요일 20여명의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질환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사전설문조사, 기초체력검사, 체성분분석을 토대로 약력검사와 유연성검사를 3개월마다 측정하고, 노인대상 질환별(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등) 맞춤형건강체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 분기(3개월) 후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개인별 건강개선 및 지속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2분기 진행 중이며 20명 대상으로 약력과 유연성을 전, 후 측정된 결과 약력은 평균 1.6kg, 유연성은 평균 3cm 정도 향상을 보였으며 개개인별 신체적, 정신적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됐다.

군은 건강백세운동교실 미실시 지역으로 건강백세운동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8월말까지 특별대책기간 지정... 안전관리요원 배치·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장수군은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계곡 및 하천 등 6개소에 8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하는 등 물놀이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3일 무진장소방서의 협조로 장수119안전센터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물놀이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구조장비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습 교육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군은 4일 토요일계곡에서 공무원 및 재난네트워크 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물놀이 안전수칙과 수난사고자 발견 시 행동요령 등이 실린 홍보전단지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구명환 29개, 구명로프 27개, 구명조끼 31개 등을 포함한 135개의 안전장비를 물놀이시설 곳곳에 설치 완료하고 기존의 인명구조장비의 훼손여부와 표지판 파손 여부 등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군은 주요 물놀이시설 2개소에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하는 등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장기정 안전재난과장은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하며 민관 합동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우리 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즐거운 여름철 물놀이가 되도록 사전 준비운동과 안전수칙 준수 등 유의사항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반딧불이 지킴이 봉사단 322명 본격 활동 시작

무주군은 반딧불이 지킴이 봉사단 322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발대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이성만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장과 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구천동 난타팀의 식전공연과 기념식, 반딧불이 지킴이 배치 수여식,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반딧불 축제와 반딧불 농·특산물, 청정무주의 이미지는 모두 반딧불이가 지키고 있는 무주의 보물"이라며 "이 보물들이 재값을 발휘해야 무주발전도 있는 만큼 2만 4,000여 군민 모두가 뒤

따르며 반딧불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반딧불이 지킴이 봉사단은 반딧불이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개체 수 증가를 위한 환경보호를 위해 발족된 단체로, 봉사단원들은 이 자리에서 △무주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활동을 주도하며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헌신할 것, △무주반딧불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이성만 위원장은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향한 모두의 열의를 담아 군민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며 "반딧불이가 천

연기념물 제322호라는데 착안해 322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했으며 각 읍면의 반딧불이 출현지 180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뜻을 함께 해주셨다"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6개 읍면 180곳에서 애반딧불이(14곳)와 운문산 반딧불이(33곳), 늦반딧불이(133곳)가 출현을 하며 무주반딧불축제는 늦반딧불이 출현시기인 8월 말에 개최되고 있다.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5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해 1박 2일 생태탐험, 나화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체험해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마이회, 윤일암반일암 환경정화 활동

진안군 기관·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진안군마이회 회원들은 5일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지난달 26일 개장한 주천면 윤일암반일암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장마철 곳은 날씨 속에도 이항로 군수와 40여명의 기관·사회단체장들은 윤일암반일암 계곡과 탐방로 등을 중

심으로 쓰레기 줍기 등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했다.진안군마이회는 매년 자원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명절 위문 방문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살기 좋고 깨끗하며 정이 넘치는 진안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재난관리 종합대책회의

진안군은 5일 여름철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안전재난과장, 추진부서팀장, 무진장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계획에 대한 종합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3개 분야 13개 과제(자연재난·풍수해·폭염·가뭄·산사태, 안전관리·물놀이·청소년수련시설·교통사고·야영장 및 캠핑장·식중독·감염병, 유관기관·교통사고, 전력수급, 소방안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공무원 매니페스토 특강

진안군은 5일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청해 '매니페스토운동과 청년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특강을 군청 강당에서 실시했다.

특강에 나선 이광재 사무총장은 혁신의 실체와 변화의 흐름,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주의, 알파고(AI) 시대 청년 지방자치에 대해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의 고별연설, 문재인 대통령, 토니블레어 전 영국총리의 매니페스토 선언 등을 사례로 들어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진안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공무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